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4-12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4-12
2020-04-12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04-12

1. [아, 안사요]

이제와서자기네들좀다시사달라는모양새가참으로애처롭다. 이번 보궐선거에서완패, 참패한뒤' 후보를공천하지말았어야했다' 는뒤늦은 후회를하는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들말이다. 이들이애처로운이유는두 가지인데, 하나씩좀살펴보자.

첫째, 누구나이생각부터들었을것이다. 왜그때가아니라지금와서이러지? 정말로민주당초선의원들이고박원순전서울시장의행동에대해당차원에서반성을하고그로인해초래된여러과장및사회적손실을생각했다면지금이나나라박영선후보가출마하겠다고설치던그때이야기를꺼냈어야했다. 그때는차마다선의원들의입김에그런말을꺼낼수없었지만 지금은당지도부에반기라도들었다는말인가? 그뎨...

말같지도않은소리를하면애처로운법이다.

둘째, 혹시초선의원님들, 당의의견을받들어충알받이몸뻥으로이런쇼하셨는지? 그렇다면여러분의그나마도희미한그존재의의가어디에있는지? 당에뇌를맡겨두고' 가라! 피카츄! 몸통박치기!' 하면언제든뛰어드는분들이애처롭지않을리없지않은가. 이렇게안하면다음번공천은없다고누가협박이라고하셨나? 만약그래서이런쇼를하셨다면, 스스로의능력으로의원을할감도안되는사람들이니애처롭고, 협박받고자유를박탈당하고도부끄러운줄모르시니더애처롭고, 참드릴말씀이없다.

이번선거의결과가말하는민심은너무나명확하다. ” 민주당도국민의힘도다개같은데이번에는민주당이더짜증나니까엿먹어봐라” 이다. 이걸가지고또말잔치좋아하시는호사가들이'20 대남자가극우네 ~', '20 대여자는 TERF 나찍는혐오주의자들이네 ~' 어찌고들하고계시는데, 그냥아직선거는반드시해야만한다는울며겨자먹기의상황에서더쫓같은새끼들찍은거지, 이걸로제발헛소리들좀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박노자선생을위시한명청한당신들이이야기하는게맞다.

이번에는아직많은대중이선거를반드시해야만한다, 선거로마음에안드는놈들엿먹이겠다는선택지외의다른길을발견하지못했을뿐이다. 우리나라키스트연대역시이점에대해더많은대중에게우리의목소리를알리는데모든열과성을다하지못했으니엄중한평가와반성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우리는여기에서멈추지않을것이고정치로우리의삶이바뀌지않는다는생각을하는모든이를한데모아내기위해전진할것이다. 때문에지금여기서우리는정치병자들에게다시한번고한다.

” 아, 안사요.”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766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27308>

2. [언제부터정부가자치의필수조건이었나]

한국의대학들에서, 총학생회가세워지지않고있다고들한다. 그리고 < 연합뉴스 > 는이것이학생자치가상실되고, 학생들의의견을반영할창구가사라져가고있음을의미한다고한탄한다. 하지만정작기사에서는, “(학생자치에) 관심이많아서선거불참으로의사를표명하는것”이라거나, “총학생회의필요를느끼지못”하고있다는학생대중들의의견이표출된다. 대학사회에서의자기삶을꾸려가는데있어, 총학생회라는유사정부가더이상필요하지않다는이야기다. 이것이왜스스로다스리는것(자치) 이아닌가.

무엇보다, 언제부터총학생회가자치의기구였는가. 학생자치를표방한것은맞았을수있는데, 학생대중의“삶”에필요한것중총학생회가결정할수있는것이무엇이었는가. 예산결정에개입할도리가없는한, 등록금결정이건, 학교생활의행정적개선이건피할도리도없다. 행사를주관한다고하지만, 솔직히지금의대학사회에서무슨행사가학생대중의참여를불러올수있을지모른다. 오죽하면총학생회가학생자치에필연적인기구라고주장하는기사에서마저도, 대학축제, 를쓰후다른행사가떠오르지않았는지“등”을바로붙였겠는가. 학생회이름으로정치하지않았으면 좋겠는데, 솔직히정치를하건학생복지를하건아니면말하건, 그것에학생대중이참여하지않으면달라지는것은아무것도없다.

결국, 총학생회가실질적으로학생대중의삶에영향을줄수있을만한, 학생자치를이룰만한힘을가지기위해서는, 총학생회의등록금투쟁이나 교내현안해결을위한투쟁에, 총학생회주관의행사에, 총학생회의사업에학생대중들이직접참여해야만한다는결론이 나온다. 그런데어차피학생대중들이직접참여해야자치할수있다면, 굳이총학생회라는대리인을들이유는또무엇인가.

7-80 년대, 민주적총학생회를세우고자하였던학원민주화투쟁은, 군사독재의치하에서민주적정부를세우고자하는시민적열망과그맥락을같이한다. 학교가선정한어용대리인이아니라, 학생들의총투표로, 학생들이세워올린학생들의대리인을선정하고자했던운동이었다. 하지만, 군사정부를끌어내리고그자리에문민정부를세운것이인민의자유로운삶을, 사회의민주적운명을세워내지못했던것처럼, 학생의총투표로

세워올린민주적총학생회도, 학생들의삶을바꾸지못했다. 자치를수립하지못했다.

기사가지적한것처럼, 대학에서의학생자치는흔들리고있다. 하지만 그것은총학생회가세워지지않았기에흔들리는것이아니다. 오히려, 1년에단 1 주일, 총학생회투표일에만“자치”하고, 그것으로학생자치의 근간이마련되었다고믿고안심해온, 그환상이깨어지고, 애초부터흔들리고있던현상을마주하게되는것에가깝다.

이제, 학생자치를세우자. 학생총회를준비하자. 학생조합을조직하자. 총학생회따위의대변에기대어가는자치가아니라, 자기목소리를직접내고, 자기요구를직접학교에전달하고, 그것을관철하기위한방안들을직접고민하는, 제대로된자치를세워내자.

” 사라지는대학가총학생회...학생자치' 흔들'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

3. [조합이우리를강하게하리라]

얼마전, 세계굴지의초거대기업아마존에서노동조합을설립하고자 하는시도가있었다. 지난모든세월동안무노조경영을경영원칙으로삼았던아마존에게있어, 이는중대한문제였다. 아마존노동자들은겉보기로는훌륭한대우를받고있다고회사에의한선전을곧이곧대로듣지않았으며, 베시머사업장을시작으로여러곳에서노동조합을설립하고자하는시도를벌여왔다.

당연하지만사측은가만히있지않았다. 아마존은노조가설립된다면 오히려고용이불안정해진다는니, 노동조합은노동자를대변하지못한다는니, 노동조합이결성돼봐야사업장이폐쇄될수도있다는등의협박을벌여왔다. 그리고투표를감시하려는시도를함은물론이거니와투표에있어 거짓정보들을계속해서흘려왔다. 그들의의도는효과를봤고, 노동자들에대한사측의협박은노동조합설립이부결되는결과를낳았다.

그러나우리모두는알고있다. 가면갈수록노동조합에대한열망과노동자들의자유로운미래를향한갈망은커져만가고있다는것을말이다. 이번아마존노동조합은부결되었음에도불구하고, 미국에서의노동조합조직에대한열기는끊이지를않고있다. 오히려대중은아마존의추악한방해

공작에대한성토를계속하고있으며, 심지어의회의원정기꾼들조차도이에 편승하여연일아마존을때리는척이나마하고있지않은가?

우리는확고히알수있다. 노동조합은우리를더강하게만들어준다. 노동조합은그존재자체로, 혹은그것을만들고자하는시도만으로자본가들과국가권력을벌벌떨게만들수있다. 미국의노동자들은이를눈앞에서목격했으며, 이제다음차례는한반도남쪽의이땅이될것이다. 조합이우리를강하게하리라.

” 아마존, 노조설립무산됐지만...” 노동법개정” 후폭풍거세”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0539.html